

상하이 타이강루

상하이 도심 주변 곳곳에 있는 예술 단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은 바로 이 타이강루입니다.

타이강루는 우리나라의 홍대나 삼청동과 같은 곳인데요,
사진 및 그림 갤러리와 공방이 모여있는 예술인들의 아지트이자,
이색적인 카페와 펍들이 미로 같은 골목에 가득 들어차있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좁은 골목에 자리한 크고 작은 노천카페에는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브런치를 즐기는
상하이니즈들과 외국인들로 가득차 있었답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골목에 들어선 듯,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벌써 네 번째 상하이를 방문했지만,
이 타이강루 만큼은 항상 빼놓지 않고 찾아가곤 합니다.



8호선 陆家浜路 Lujiabang Road

9호선 打浦桥 Dapujiao

상하이 티엔즈팡 田子坊

주소 : 上海市黄浦区泰康路210弄

<http://www.tianzifang.cn>

티엔즈팡은 상하이의 옛모습을 볼수 있는 곳으로,
상하이 예술인들이 연 가게와 상하이 전통물품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곳입니다.



(이미지 출처 : www.ctrip.com)

작은 골목에 여러가게들이 들어서 있고, 각가게마다 특색이 있어서 좋아요.



(이미지 출처 : www.ctrip.com)

견다보면 길을 잃어 버리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골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특색있는 음식점들도 많아요.



(이미지 출처 : www.ctrip.com)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 파는 가게와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 전시한곳도
있어,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출처: <http://www.laopengyou.xyz/83> [Laopengyou]

작성자 [레이디 L](#) | 작성일 [2012-04-16](#) | 댓글수 [3](#) | 카테고리 [상하이](#), [예술/문화](#), [중국](#)

중국 '상하이' 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세계의 공장으로 대표되는 경제대국의 이미지를 흔히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해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문화/예술 산업이죠!

중국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몇 년 전부터 젊은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적극적인 투자의 결과 상하이에만 무려 80곳이 넘는 복합예술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